

예수님의 가르침과 축귀

말씀 시리즈: 마가복음 강해 7

본문: 마가복음 1:21-28

| 서론: 권위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현현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고, 그물과 배와 가족을 뒤로한 채 예수를 따랐다. 이는 단순한 삶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던 삶에서 돌아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근본적인 전환이었다.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하며 **참된 제자로서의 훈련을 시작한다**. 반면 오늘날의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육성을 직접 듣거나, 성육신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동행하는 경험을 하지는 못했다. 시간과 공간의 차이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방식의 부르심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시공간을 넘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믿는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은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다시 들려온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읽는 일은 과거의 사건을 관찰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그 현장에 함께 서 있는 제자처럼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 복음서는 주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 참된 제자로 변화되고 세워지도록 기록된 말씀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첫 공개 사역 장면을 제시한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게 된다. 이는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가는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곧 ‘권위’를 처음으로 드러낸다. 이 권위는 지위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권위였다. 이어지는 귀신 축출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이 설명에 그치지 않고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는 능력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순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사건으로 드러난다.

이제 우리는 이 장면 앞에서 질문하게 된다.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그리고 그 권위 앞에서 사람들과 영적 세력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품고 마가복음 1장 21-28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한다.

| 본론: 본문 주해1

Mark 1:21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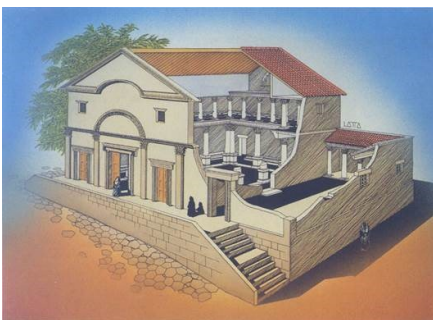
Mark 1:22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1. 사역의 시작: ‘그들’, 가버나움

마가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본문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혼자가 아니라 이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셨음을 의미한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에 동행하며 제자로서 훈련을 받는 자리로 들어서게 된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로, 인구 약 천 명 남짓한 소규모 공동체였다.¹ 그러나 이 작은 마을은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장소가 된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크고 중심적인 곳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안식일과 회당: 시간과 공간의 의미

21절 후반절은 그 날이 안식일이었고,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고 전한다. 이는 본문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동시에 제시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먼저 **안식일**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적인 날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심으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동시에 출애굽기의 맥락에서 안식일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집들이 구원을 경험하였고, 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켜왔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기념하는 날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장소는 **회당**이었다.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나 예배 처소와 유사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래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며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나아갈 수 없게 되자, 포로 공동체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회당을 세우게 되었다. 이 회당 전통은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어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적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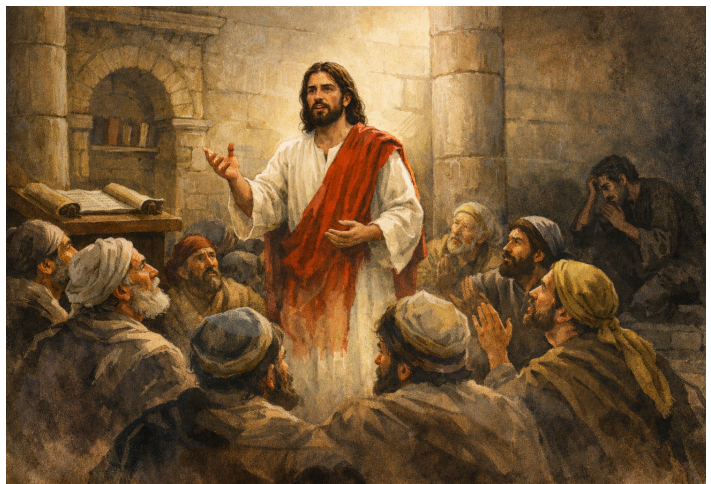
1 가버나움(Capernaum)은 갈릴리 북서쪽, 갈릴리 호수 연안에 위치한 어촌 마을로, 1세기 당시 인구 약 1천 명 내외의 소규모 공동체였다. 히브리어 케파르 나훔(כפר נחום, “나훔의 마을”)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상업과 어업이 함께 이루어지던 지역이었다. 이 도시는 갈릴리와 이방 지역을 잇는 주요 교통로인 ‘비아 마리스(Via Maris)’ 인근에 위치해 있었으며, 세관(막 2:14)이 존재할 만큼 경제·행정적으로도 중요한 거점이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을 떠난 이후 가버나움을 공생애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고(마 4:13), 이곳에서 회당 가르침과 치유, 축기 사역을 집중적으로 행하셨다. 가버나움은 예루살렘과 같은 종교적 중심지가 아닌 변방의 작은 마을이었으나,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신다. 마가는 이 시간과 장소를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복음의 성격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제시한다.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날이며, 회당은 그 구속의 기억을 말씀으로 보존해 온 공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복음, 곧 **승전의 소식을 선포**하신다. 이어지는 **귀신 축출 사건**은 이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3. 사람들의 반응: 권위 있는 가르침

22절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전한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의 교훈에 놀라워했는데, 그 이유는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마가는 이 반응을 통해 예수의 가르침을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분명히 대비시킨다. 서기관들은 율법과 전통을 연구하고 해석하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으며, 그들의 가르침은 주로 기존의 권위 있는 전통과 선례를 인용하는 방식에 기초해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다른 권위에 의존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체로 권위를 지닌 말씀이었다**. 예수는 율법을 설명하거나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마가복음이 이 장면에서 예수의 가르침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마가는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보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는 예수의 말씀이 단순한 교훈이나 정보 전달이 아니라, 듣는 이들의 인식과 현실을 흔드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후 이어지는 축귀 사건은 그 가르침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다. 예수의 말씀은 곧바로 더러운 영을 제압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는 예수께서 회당에서 선포하신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승전의 소식**임을 보여준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는 이제 회당 한가운데서 말씀으로 그 승리를 선언하고, 실제로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상들의 전통과 율법의 세부 규정에 머물렀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선포되는 살아 있는 말씀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증언하는 권위 있는 선언이었다.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고 권위로 받아들인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 나는 말씀을 단순히 지식이나 교훈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가, 삶을 변화시키는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탄의 영향력에 맞서 나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 본론: 본문 주해2

Mark 1:23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Mark 1: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1. 거룩한 회당과 혼란의 현장

예수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작용할 때, 회당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의 외침이 나타난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이고, 공간적 배경은 회당이다. 안식일과 회당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시간과 장소임에도, 악한 영이 활개를 치며 방해하는 장면은 강한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이는 당대 영적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드러낸다. 거룩한 자리에서 더러운 영이 목소리를 높여 소란을 일으킨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제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장면은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사람을 쉽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나와도, 마음의 중심이 욕심, 탐심, 이기적 자기 주장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역시 본문의 더러운 귀신들린 자와 다르지 않다. 적어도 본문의 귀신들린 사람은 그 소란스러운 행동으로 잘못과 문제를 쉽게 드러냈지만, 오늘날 더러운 영에 마음이 제어된 신자는, 스스로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쉽게 알 수 없기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2. 무너진 권위와 악의 영향

본문 속 더러운 영에 제어 당하는 상황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능을 보여준다**. 서기관과 같은 지도자들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기에, 거룩한 안식일과 회당에서 악한 영이 활개를 친 것이다. 오늘날에도 거룩한 주일과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말씀의 본질보다 세속적 처세나 성공 전략을 강조하고, 낮아짐과 섬김, 고난과 희생의 좁은 길을 외면한다면, 신자들의 중심도 흔들리며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 이처럼 지도자의 영향이 미치는 자리에서는 거룩함이 위태로워지고, 악한 영향이 활개칠 위험이 존재한다.

마가는 이러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스가랴 13:2**의 예언을 떠올리게 한다.² 예언에 따르면,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종말의 날에는 더러운 영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제거된다. 이는 당대 서기관들의 변질된 율법 가르침을 비판하는 동시에, 참된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거짓이 드러나고 쫓겨나게 됨을 보여준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과 함께 쫓겨나는 거짓 선지자는, 잘못된 가르침과 왜곡된 영적 권위를 상징하며, 참된 복음 앞에서 결국 무너질 운명을 보여준다.

² Zech. 13:2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에서 세속적 처세술이나 성공 전략이 중심이 되면, 살아 있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한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참된 말씀과 권위 있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참된 복음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권위로 받아들여지며,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로 나타난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살아 있는 말씀의 능력과 권위, 그리고 그 복음의 승전 소식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세이다. 그러할 때, 안식일과 회당에서 악한 영이 쫓겨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악한 영과 거짓된 가르침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능력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3. 더러운 귀신의 고백과 메시아닉 시크릿

24절은 더러운 귀신이 소란을 피우며 주님의 말씀을 훼방하던 가운데, 주님께 따지는 장면이다. 이 악한 영은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귀신은 주님을 ‘나사렛 출신’이라 밝힌다. 이는 당대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상이 유대 중심지에 있다는 생각과 달리, 북쪽의 작은 마을 나사렛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예수의 권위와 영향력에 흠집을 내는 **의도적 언급**이다. 귀신은 회당에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감화력을 훼손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상관없을 수 없다. 주님은 악한 세력을 멸하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는 질문도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진리를 부정하고 반항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24절 후반절에서 더러운 귀신은 주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는 긍정적 의미의 고백이 아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더러운 귀신의 논리는 단순하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한 자는 구별된 자이므로, 구별된 자가 더러운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더러운 귀신은 자신과 주님은 상관없다고 주장하며 반항한다. 설령 주님이 자신들을 멸하러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더러운 귀신 나름의 논리로 주님께 반항하며, 주님의 사역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더러운 귀신의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이 고백은 은연중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부정적인 의미의 행동이다. 당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전쟁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주님의 메시아는 섬김과 고난의 모습을 지니셨다.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메시아 됨을 깨닫기 전에는, 사역이 오해되고 복음의 방향이 변질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종종 주께서 때때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침묵하려고 명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며,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메시아닉 시크릿(Messianic Secret)**’이라 부른다.

더러운 귀신이 드러낸 이러한 고백은, 표면상 인정처럼 보여도 결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사탄은 끊임없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복음의 방향을 흐리려 한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는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 맞는 말이라도 지혜롭게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주님의 구원자 되심과 복음이 값싸게 여겨지지 않도록, 올바른 때와 방법으로 신중히 전해야 한다.

§ 회당 안의 귀신 들린 자처럼, 겉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으나 내 중심은 여전히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귀신의 외침처럼, 삶의 특정 영역에서 주의 간섭을 거부하며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주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 본문: 본문 주해3

Mark 1:2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Mark 1: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Mark 1:27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Mark 1:28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1. 말씀의 권위

더러운 귀신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꾸짖으시고 명령하신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단순한 명령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권위는 놀라움 그 자체다. 당대 축귀(逐鬼) 방법은 복잡했다. 주술적 의식, 외적 도구, 특별한 주문 등 여러 방법에 의존했지만, 주님은 단순히 **말씀하심으로** 귀신을 제압하신다. 26절은 더러운 귀신이 주님의 명령을 견디지 못하고 떠남을 보여주고, 27절은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다. 사람들은 놀라고,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권위 있는 교훈으로 받아들였다. 더러운 영이 순종하여 떠난 모습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강력한 권위의 증거였다.

2. 창조와 새창조의 질서

주님의 축귀 사역은 단순한 귀신 축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창조**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 속에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은 혼돈의 세력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다. 또한, 이 현장은 **구속의 자리**이기도 하다. 더러운 귀신에게 제어당했던 한 사람이 자유를 얻고 구속을 경험한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주님은 바로 이 안식일에 새로운 창조와 구속, 곧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드러내신다. 이로써 축귀 현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창조 질서와 구속 사역이 결합되어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임재가 실제로 드러나는 현장임을 보여준다.

3.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소문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는 축귀 사역은 곧 주님이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사람들은 그 권위에 놀라고, 주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권위 있는 교훈으로 받아들였다. 28절에서 보듯, 주님의 소문은 **온 갈릴리에** 자연스럽게 퍼졌고, 어둠의 세력 위에 승리하시는 복음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 사람들에게 믿음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적 장면임을 보여준다.

§ 내 삶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질서와 평화를 세우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의 죄와 문제를 쫓아내어 자유와 구속을 주실 때,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감사로 반응하는가?

| 결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깊이 살펴볼 수 있었다. 마가복음 1:21~28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첫째, 예수는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는 권위를 보여주셨다. 단순한 명령 한마디로 귀신이 떠난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방법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권위가 있음을 드러낸다. 당시 사람들은 복잡한 주술과 의식, 주문으로 귀신을 제어했지만, 예수의 권위는 단순하면서도 절대적이었다. 이 권위를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주님의 가르침을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살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준다. 말씀을 단순히 듣거나 지식으로 쌓는 데 그치지 말고, 삶 속에서 그 권위를 신뢰하고 순종할 때 혼란과 죄를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난다.

둘째, 예수의 축귀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새창조와 구속을 드러내는 장면이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 속에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는 혼돈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창조의 질서를 세우셨다. 더러운 영에게 제 어당했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구속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은 혼란과 죄를 몰아내고 참된 회복과 평안을 가져온다. 특히 안식일과 회당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은,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이나 과거 이야기로 보지 말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 예수의 권위와 능력은 메시아 되심과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냈다. 28절에서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진 것처럼,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능력이다. 오늘 우리도 말씀과 복음을 전할 때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넷째, 본문은 제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가르친다. 예수가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서 훈련된다. 제자로 부름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활동이나 종교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로 내어놓고 말씀과 권위 앞에서 순종하는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그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창조와 구속, 복음의 승리가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새로운 질서와 회복이 임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난다. 우리는 이 원리를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한다. 일상과 공동체 속에서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고, 복음을 통해 자유와 구속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이며, 참된 제자의 길이다.

| Quiz

1.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이유로 올바른 것은?

- ① 사람들에게 새 율법을 제정하기 위해 ②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 ③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④ 전통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강화하기 위해

2. 본문에서 안식일의 의미 중 '출애굽기'의 맥락에서 강조하는 것은?

- ① 창조 사역의 기념 ② 구속의 은혜를 기억함 ③ 성전 제사의 중요성 ④ 율법의 엄격한 준수

3. 더러운 귀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한 의미는?

- ①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기 위해 ②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
- ③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④ 거룩한 자는 더러운 자신과 상관없음을 주장하며 반항하기 위해.

4. 예수의 축귀 사역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올바른 것은?

- ① 새로운 창조 질서와 구속의 역사 ② 단순한 지식 전달
- ③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 ④ 주술과 주문을 통한 권능

5. 마가복음 1:28에서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퍼졌다"는 의미는?

- ① 예수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음을 의미 ② 귀신의 영향력이 확산됨을 의미
- ③ 복음의 능력과 권위가 세상에 드러났음을 의미 ④ 회당과 안식일 전통을 강화함을 의미

6. '예수께서 가르치신 '권위'는 무엇에 근거하여 나타났는지 간단히 쓰시오.

7. 회당과 안식일이 예수 사역의 배경으로 중요한 이유를 쓰시오.

8. 거룩한 안식일과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던 아이러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가?

9. 더러운 귀신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제거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예언이 담긴 구약 성경의 구절은 어디입니까?

10. 예수의 축귀 사역이 단순한 기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이유를 쓰시오.